

VOL.06

2022 | 봄

충북학누리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백석정

충북학누리

Vol.06 | 2022 봄

CONTENTS

- | | | | | | |
|----|--|----|----|--|----|
| 01 | 여는글
전환기, 충북학연구소의 역할과 사명
임기현 | 3 | 05 | 충북 문화예술 여행
충북의 영화 이야기 1
윤정용 | 19 |
| 02 | 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 공간
아름다운 정자로 손꼽히는 낭성 백석정
박용만 | 5 | 06 | 충북학연구소 소식 | 25 |
| 03 | 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
어려운 때에 義를 생각한다
조범희 | 11 | | | |
| 04 | 충북의 옛이야기
옛것을 잊지 않고 담아내는 이야기 전승
이상희 | 15 | | |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6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2. 04. 30.

전환기, 충북학연구소의 역할과 사명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사회를 살아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은 오랫동안 무관심의 영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른바 서울 중심의 '중앙'의 시선을 벗어나, 드디어 제 삶의 터전인 '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역학'이 강조되고, '지역정체성'이라는 말이 본격화된 것도 이 무렵이다. 1999년 2월, 당시 충북개발연구원(현재 충북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의 출발 배경 역시 이러한 지역 분권 의식과 관련이 깊다.

그간 충북학연구소는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역사·민속·문화·사상·예술 등의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성과물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해 왔으며, 충북학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기존의 지역 아카데미가 소홀히 해왔던 '지역학' 담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 지역 지역학 연구의 선도적 주체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노력의 일단을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http://csi.cri.re.kr/>)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충북학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도내 유일한 광역 단위 지역학 연구소로, 또한 충북연구원 내 10개 특별연구조직 중 지역의 역사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 철학, 사상 등의 학문적 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의 보루로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환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과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가 단위의 제약이 사라지고, 그만큼 '지역'이 세계와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는 '지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나날이 치솟고 있는 한류의 위상이 증명하듯 21세기는 또한 문화의 세기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그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지역의 역사문화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그간 경제 제일, 성장 중심의 가치 추구가 가져온 숭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외국인의 유입과 다문화사회,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독사 문제 등. 이러한 과제들 상당수는 인문학이 처한 위기와 무관치 않으며, 그만큼 지역학이 현재와 좀 더 소통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받고 있다. 충북학연구소는 이러한 난제에 ‘오래된 미래의 온축된 지혜’를 바탕으로, 인문학이 지역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문화예술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큼이나 청주와 비청주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6개 시·군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에 충북학연구소는 청주 중심의 충북학에서 벗어나 11개 시·군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그 학적 체계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광역 단위 연구소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받고 있다. 최근 기초 지자체 단위의 지역학 연구소가 속속 설립되고 있다. 기존의 향토사연구회 및 이들 연구소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11개 시·군의 개별적인 역사문화 정체성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때, ‘충북학’이라는 광역의 지역학도 온전히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 격차 해소 노력은 인구 감소지역의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왕에 지속되어 오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학에서도 기록(아카이브)과 소통의 방식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일, 이러한 성과들을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중요해졌다. 이러한 충북학연구소의 노력은 우리 지역 지식문화산업의 발굴과 구축 및 유통에 새로운 모범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는 데 현재의 연구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탓하며 안주할 수 없다. 충북도민 모두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 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지표로 드러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충북도민의 행복한 삶, 그 근저를 이루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에 우리 충북학연구소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름다운 정자로 손꼽히는 낭성 백석정

박용만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신교, 백석정을 세우다

청주에서 미원으로 가는 길은 낭성에서 오는 길과 만나게 된다. 두 길이 만나는 강가에 솟은 바위 위에 정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바위는 주위 경관에 비해 흰 빛을 띠고 있는데, 정자를 백석정(白石亭)이라 이름한 것도 바로 이 바위에서 연유하였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여섯 개의 기둥 위에 기와를 얹었는데 그중 기둥 하나는 다듬지 않은 채 나무 기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연을 최대한 살려 지금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풍광은 조선시대 서울까지 알려져 다수의 한시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 백석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누정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신교(申漣, 1641~1703)는 청주시 낭성면 지담 가에 이 정자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었다.

해동에 바위 하나 있어
바위 하에 내 정자를 얹었네.
물가에 닿아 화려한 서가래 일렁이고
하늘에 의지하여 그림 같은 추녀 열렸구나.
높이 오른 푸른 등나무 한참을 바라보고
계곡의 푸른 난초 절로 사랑스러워라.
세상과 더불어 서로 어긋나 떨어져
이제야 돌아와 산신령과 짝하네.

海之東有石
石白搆吾亭
臨水纈彩桷
依天闢畫櫺
長睨喬藤碧
自愛谷蘭青
與世相違別
今歸伴岳靈

신교가 낙향한 뒤에 정자를 지어 놓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정자의 배경과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풀어내었다. 세상을 멀리하고 고향 청주의 전원에서 삶을 즐기고 싶었던 신교에게 적합한 공간이 바로 백석정이다.



▲백석정 전경

백석정의 경관

이 정자의 주변 풍광은 조카인 신필청(申必淸, 1647~1710)이 백석정팔경(白石亭八景)으로 읊었다. 팔경은 아름다운 자연의 승경을 8가지로 구분하여 한시로 기록하는 문화였다. 그 소제목을 보면 1경 <옥계의 비갠 뒤 달(玉溪霽月)>, 2경 <석봉의 돌아오는 구름(石峯歸雲)>, 3경 <혁평의 목동 피리 소리(革坪牧笛)>, 4경 <사탄의 어부의 노랫소리(沙灘漁歌)>, 5경 <지담의 작은 배(芷潭小艇)>, 6경 <유랑의 긴 다리(柳浪長橋)>, 7경 <백암의 단풍(白巖丹楓)>, 8경 <취벽의 푸른 소나무(翠壁蒼松)>이다. 제목에서 앞의 두 글자는 공간을 지칭함을 감안하면, 옥계(玉溪), 석봉(石峯), 혁평(革坪), 사탄(沙灘), 지담(芷潭), 유랑(柳浪), 백암(白巖), 취벽(翠壁)의 경관을 상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필청의 한시에는 정자 주변의 영천(靈泉)이 보인다.

조화옹이 신령한 물을 빚어
돌절구 사이에 감추었다네.
주인이 그 신비로움을 들춰내어
내게 산을 찾아오게 하였네.

化翁釀靈液
藏在石臼間
主人發神祕
要我踵次山

영천은 정자 뒤의 샘물로 추정되는데, 신교가 백석정을 세우면서 뒤에 있는 영천(靈泉)을 찾아내었다. 영천이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신필청은 이것을 조화옹이 빚어 감춘 것을 신교가 찾아내었다고 표현하였다.

백석정의 풍광을 그림으로 풀어내다

백석정의 명성은 이 정자의 풍광을 그린 그림 족자으로 인해 서울의 사대부에게도 퍼져 나갔다. 신교는 벼슬살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고향의 정자를 잊을 수 없었던 그는 백석정을 그려 조금이나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 그림은 백석정을 포함한 계곡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었다. 백석정의 내력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의 사대부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이 그림 족자는 아름다운 백석정의 풍광을 확인하는 좋은 볼거리였다. 이때 지은 한시가 신교의 <이현정헌제화장(泥峴精軒題畫幀)>이다.

높고 높은 흰 바위는 동쪽으로 머리하고
화려한 누각은 범의 기세처럼 뛰어 오를 듯.
베개 베고 누워 보니 보아도 부족하니
서울에서도 오히려 고향의 노닐을 얻었다네.

巖巖白石石東頭
彩閣臨虎勢欲浮
高枕臥看看不足
洛城猶得故園遊

이현(泥峴)은 백석정이 있는 고개의 명칭인 듯하다. ‘이현의 정자를 그림으로 그려 제화시를 쓴 족자’라는 제목처럼 신교는 정자와 주변 풍광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그것을 족자로 만들어 서울로 가져 갔다. 서울의 사대부에게 보여 제화시를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족자를 만든 그의 도는 서울의 벼슬살이에 고향의 백석정을 그림으로나마 바라보면서 산수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희고 큰 바위가 동쪽으로 벌려 있고, 바위 위에 솟아오를 듯한 정자 모습은 현재의 백석정과 차이가 없다. 그는 자주 찾아가보지 못하는 백석정을 즐기기 위해 백석정의 그림을 펼쳐 놓고 와유(臥遊)하고 있다. 비록 육체는 그곳을 가보지 못하지만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세계로 자유롭게 뻗어 나가는 것이다.

본래 신고는 자연에 묻혀 산수를 벗 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경기도 광주(廣州)에 ‘임경(臨鏡)’이라는 정자를 두었으며, 고향에 은거하면서 백석정을 세웠다. 그의 이러한 원림(園林)에 대한 욕구는 여러 곳에 정자를 세우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백석정 들어가는 길의 비석

서울 사대부들의 부러움을 받다

이 그림을 보고 이서우(李瑞雨, 1633~1697)를 비롯한 서울 사대부들은 한시를 지어 부러워하였다.

백석정의 풍문을 들은 것이 오래더니
청산이 앉은 자리에 들어 새롭구나.
손님으로 산동 문향(文鄉)의 선비가 온 줄 알았거니
스스로 그림 상자의 신세가 된 것이 부끄럽다네.
작은 정자에 머물며 술 한 잔 마시고
외로운 배에 낚싯대 거두네.
서리맞은 단풍에 슬픈 마음 주체하며
다시금 살구나무와 창포의 봄을 생각하네.

白石聞名久
青山入座新
應知紙庫客
自愧畫廚身
小閣留斟酌
孤舟捲釣緇
霜楓堪悵望
重憶杏蒲春

이서우는 본관이 우계(羽溪)로, 1660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대북(大北) 가문에서 성장하여 남인(南人)으로 활동하며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의 서인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 특히 그는 남인의 문학적 정통성을 계승한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백석정 그림 족자에 이서우의 한시가 있다는 것은 신고와 백석정의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서우는 신고의 백석정에 대해 그 존재만이 아니라 주변의 경물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마지막 구에서 “다시금 살구나무와 창포의 봄을 생각하네.[重憶杏蒲春]”라는 표현은 신문제(申文濟)가 지은 <백석정중수기>에서 백석정 아래 낚시터에 있는 살구나무와 창포를 지칭한 것과 흡사하다.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백석정의 경관이 이미 서울의 사대부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득 진관을 잃을까 걱정하더니
 그윽한 거처가 그림에 들어 새롭구나.
 세상 밖에 이른 것 같아
 누가 성중의 이 몸 불러주랴.
 절벽에 세 칸 정자 얹고
 물가에 낚싯대 드리우네.
 서리 맞은 단풍 또한 아름다우니
 어찌 반드시 무릉의 봄 뿐이라.

忽失秦觀病
 幽居入畫新
 如臨世外界
 誰喚城中身
 崖綴三間屋
 汀餘一丈緇
 霜楓亦奇絕
 何必武陵春

이 시 역시 백석정의 그림을 보고 지은 한시이다. 이시의 작자인 이옥(李沃, 1641~1698)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남인 중에서도 보다 엄격했던 청남(淸南)으로, 송시열의 극형을 주장하다가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만부(李萬敷, 1664~1732)가 바로 그의 아들이다. 이옥은 백석정을 무릉과 같은 이상향으로 표현하였다. 이서우와 마찬가지로 이옥 역시 당쟁의 풍파 속에서 벼슬살이의 부침을 반복하던 인물이다. 그 역시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림 속 백석정 풍광을 통해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당시 서울의 사대부로 이 그림 족자에 한시를 지은 7명의 면면은 대단하다. 앞에서 말한 이서우와 이옥 외에도 이화진(李華鎭, 1626~1696), 이봉징(李鳳徵, 1640~1705), 이식(李湜, 1643~1700), 권환(權煥, 1636~1716),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은 문과에 급제하여 당시 참판이나 판서 또는 승지 등 요직에 있었던 남인의 핵심인사들이다. 조선후기 남인은 학문적으로 이황(李滉)을 종주로 삼으면서도 영남남인과 별도로 기호지역에 있었던 별열이 기호남인으로 성장하여 세력을 구축하였다. 이들의 가문은 기호남인의 핵심적인 문벌로 자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였고, 채제공이 말한 것처럼 문학적으로도 남인시맥을 형성하였다.

작은 정자가 푸른 절벽에 기대 있으니
 형승은 그림 그리기 이전에도 있었네.
 나의 좋은 손님이 되게 하리니
 진세(塵世)에 참다운 신선이라네.

小亭倚翠壁
 形勝畫圖前
 於焉嘉客在
 塵世有真仙

이 시를 지은 이주징(李周徵)은 청주 출신으로, 문과에 장원하여 청주목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20년 간 신교를 좋아했으며 신필청과도 교류하였다. 이시는 앞의 시와 별도로 이주징이 청주목사로 재직하며 백석정을 찾아와 지은 것으로 보인다. 1697년 청주목사로 부임한 이주징은 신필청을 찾아 백석정을 방문하였다.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신필청이나 음사로 출사하였다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이주징은 예문관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목사로 부임하며 백석정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백석정 기둥 가운데 하나.

나무를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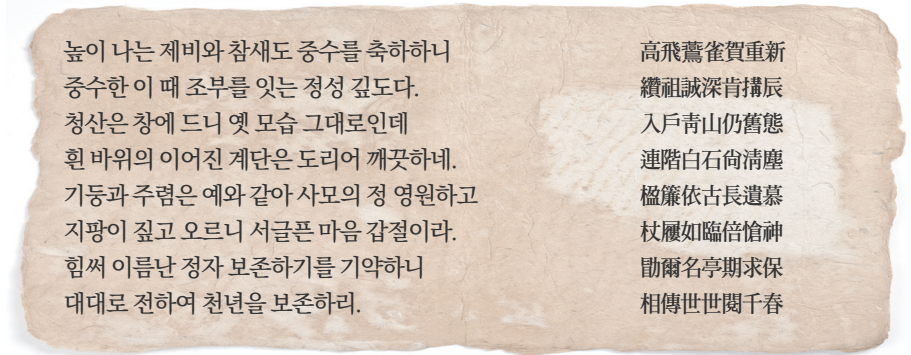


▲백석정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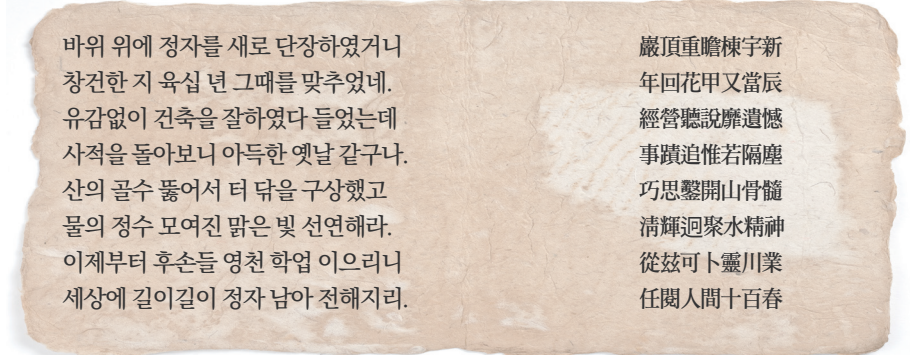
백석정을 새로 수리하다

1677년 세워진 백석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수리가 필요했고, 이에 1737년에는 손자인 신술(申澍)과 1927년에는 후손인 신종구(申宗求)가 2차 중수하였다. 이중 1737년의 중수는 세워질 당시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역시 사대부 사이에 성대한 일로 여겨졌다. 후손들은 백석정이 60년의 세월을 지탱하지 못하고 쇠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 백석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여겼다. 자식이 자식을 낳아 혈통을 계승하는 것처럼 이 백석정도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백석정의 중수에 홍성(洪晟, 1702~1778)도 중수를 축하하는 한시를 지었다.



홍성은 본관이 남양(南陽)으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시와 글씨에 능하였다. 그의 부친인 홍명원(洪命源)도 한시를 지었다. 부자가 함께 지를 지은 것으로 미루어 신교의 고령신씨와 세교(世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사대부들이 한시를 지었는데, 특히 이익(李瀾, 1681~1763)이 한 시와 기문(記文)을 지었다.



이익은 백석정의 건립 때부터 여러 모로 참여한 신필청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 정자의 중수가 남달랐다. 그는 집안 손자인 이욱환(李昱煥, 1710~?)을 통해 백석정이 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남아가는 것은 누정의 일반적인 일이고, 그것을 수리하는 중수나 새로 세우는 중건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백석정의 중수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선조를 유업을 계승하는 후손의 책무에 있다. 요체는 그 백석정이 후손의 존모의 마음에 따라 새로 중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제영이나 기문을 남긴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는 후손의 마음에 집중하였다.

백석정, 청주의 문화공간이 되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는 조선 초 나라를 안정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후손들이 청주 낭성에 정착하면서 청주의 고령신씨는 청주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자리하였다. 특히 1677년 목정리 지담가에 세운 백석정은 고령신씨는 물론 남인계 지식인들의 문화공간이었다. 백석정은 하나의 정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인 내에서는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정치적·문화적 공간이었다. 전통시대 누정을 단지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이다. 누정은 한 가문의 학문적·문화적 상징이며 나아가 그들이 속한 정치집단의 성격과 결부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정은 조선시대 남인의 문화유적이었으며 현재도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백석정 전경

어려운 때에 義를 생각한다

- 의암 손병희 선생 서거 100년을 맞아

조범희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학예연구사)

2022년은 충북이 낳은 인물, 의암 손병희 선생이 서거하신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손병희는 3·1 운동을 주도한 죄로 1920년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5월 19일 서거하였다. 당시 손병희의 나이 62세였고, 그 유해는 삼각산 동쪽 우이동 언덕에 안장되었다. 그렇다면 손병희 선생 서거 100년을 맞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손병희 선생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자

동학에 입도하여 천도교 개칭까지

손병희는 청주 북이면에서 서자로 태어났다. 서자의 설움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동학 사상에 매료되었고, 조카 손천민의 권유에 따라 1882년 22세의 나이로 동학에 입도하였다. 1892년에는 최시형 등 간부들과 함께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신원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893년에는 동학교도 2만여 명이 보은에 집결하여 '보국안민'과 '척왜척양'을 부르짖으며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벌였다. 이때 손병희는 '충의대접주(忠義大接主)'가 되어 충청도 지역 동학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후 손병희는 1894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여 복절을 이끌었다.



▲의암 손병희 선생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제공)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손병희도 피신생활을 하였다. 이 와중에 1897년 최시형의 뒤를 이어 동학의 3번째 교조로 취임하였다. 교세확장에 힘을 기울이던 손병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때가 1901년이었다.

손병희는 일본에서 귀국 후 1904년 이용구를 대표로 하여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였다. 이는 갑진 개화운동으로 단발을 시행하고 흰옷 대신 개화복을 입게 하였다. 손병희는 이 운동으로 근대문명을 수용하고 민회를 조직하여 조선을 근대 국민국가로 개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진보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용구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하여 친일단체 일진회와 통합한 것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손병희는 1905년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이어 이용구 등 62명의 일진회 무리를 출교(黜敎) 처분하는 교단정비에 나섰다. 이때 손병희는 천도교의 교리와 사상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이때 정립되었다. 또한 손병희는 일본에 있었던 시절 삼전론(三戰論)이라 하여 병전(兵戰) 보다 ‘도전(道戰)·재전(財戰)·언전(言戰)’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손병희는 천도교의 사상적 기반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의암 손병희 선생, 61세 기념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제공)

계몽운동가로 활동

손병희는 일본에서 망명생활 중 개화파들과 교류하면서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는 기존 반외세 무력항쟁의 성격이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문명개화 운동의 노선으로 방략을 변경하는 기점이 되었다. 손병희는 교육을 통한 독립정신 함양이 중요하다 인식하고, 국권 수호와 회복을 위해 민족 계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손병희는 1906년 박문사(博文社)라는 출판사를 세웠다. 그리고 천도교 기관지로 ‘만세보’를 창간하여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비판하고 민중 계몽에 적극 앞장섰으나 운영난으로 창간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손병희는 1910년 보성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여성 교육 기관인 동덕여학교를 비롯하여 보창학교·양명학교·창동학교 등 학교를 인수하거나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외에 대구의 교남학교·일신보통학교, 청주의 종학학교 등 7~8개교 설립을 도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범강습소와 교리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천도교 인재를 양성하였다.

한편 보성학원을 인수하면서 그에 속해 있던 보성사인쇄소를 기존 천도교의 창신사와 병합하였다. 이후 보성사는 『천도교회월보』를 발행하여 교인과 민중 계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보성사의 가장 큰 업적은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독립선언서 인쇄이다.

이처럼 손병희는 1910년대 계몽과 교육 등의 활동으로 민족운동의 역량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대표가 되어

손병희는 동양평화를 위해서도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손병희는 한일 합병 시에 조선인 차별과 멸시에 강한 불만이 있었다. 그러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으로 식민지의 해방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이에 손병희는 권동진·오세창·최린 등 천도교 지도자와 함께 독립운동 방식을 모색하였다.

손병희는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을 파악하고, 행정 자치를 청원하는 방식의 운동을 모색하였다. 이 와중에 1919년 2월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8독립 선언은 국내의 독립운동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손병희는 오세창·권동진·최린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독립운동의 3대 원칙으로 대중화·일원화·비폭력화를 결의하고 종교계의 중심인사들을 규합해 갔다.

손병희는 기독교계의 남강 이승훈(李昇薰)에 이어 불교계의 만해 한용운(韓龍雲)등의 동참을 만들어냈다. 또한 연희전문·보성전문·세브란스의전 등 각 학교 학생들이 추진하던 독립운동 계획도 통합하여 거족적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독립을 대내외에 알리고, 일본 정부와 파리강화회의의 열국의 대표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견서와 청원서를 보내기로 구상하였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는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와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선언식을 마친 후 자진 체포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3·1운동은 국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십 년 전부터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성을 놓고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중간에 변절자도 많고, 단순 독립선언만 했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에 따라 폄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어왔다. 물론 그에 따른 한계도 있다. 하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비중은 적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잇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3·1 운동의 상징성과 영향력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3·1운동을 가능하게 기획한 것이 손병희였다. 3·1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손병희는 엄청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의 인식과 사상이 녹아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러한 역할이 과소평가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폄훼되기도 하였다.

손병희 선생이 돌아간 지 100년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했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침략하고 있고, 독립운동가는 잊히고 있으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디아스포라로 떠돌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남과 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때다.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할 때다. 지금 우리는 손병희 선생이 마음에 품고 평생을 걸어간 인간 평등과 민족 독립의 길이 이리 왜곡되고 폄하되어도 되는지, 또는 무시하거나 모르고 살아도 되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말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펼쳐가야 할 것이다.



▲청주시 북이면 의암 손병희 선생 유허지의 동상



▲ 손병희 선생 묘소: 선생의 묘소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1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자락의 봉황각 인근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옛것을 잊지 않고 담아내는 이야기 전승

이상희
(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초빙교수)

신화소를 담은 오누힘내기설화

충북지역은 높은 산맥인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보호를 받으며, 그 아래 굽이치는 남한강과 금강으로 생명이 맥동하는 자연환경을 지녔다. 이런 자연 환경 속에 자라난 문화는 높이 올라간 산맥을 닮아 오롯이 자신의 문화를 만들고, 큰 강의 깊이를 닮아 크게 약동한다. 이런 문화의 특징을 설화 속에서 찾았다면 신화소를 담아낸 전설의 전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충북지역 설화를 이야기할 때, 축성설화 즉, 오누힘내기설화를 빼놓을 수 없다. 오누힘내기설화는 힘센 장수인 누이와 남동생이 서로 힘을 겨루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매의 힘겨루기는 오누가 자결하는 비극으로 끝맺는다. 비장미를 지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어 광포설화라고 한다. 이야기의 진정성은 남아 있는 성격이 증명한다. 이 때문에 축성설화가 오누힘내기설화의 전형을 대표하기도 한다. 성격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오래 오누힘내기설화가 전승된다고 볼 정도로 역사와 설화문학의 문화 습합은 일반적이다.

설화 연구자들이 전국을 조사할 시기, 충북지역에서도 광포설화인 오누힘내기설화 유형들이 당연히 조사 기록되었다. 국가적으로 실시한 문화재관리국 조사 당시 충북지역 설화 조사는 큰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후 연구자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충북지역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설화의 유형이 일찍이 학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광포설화인 오누힘내기설화가 축성설화와 그 맥을 같이 해 전설로 전승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여기에 더해 충북지역에서는 오누힘내기설화에 신화소(神話素)의 잔존 형태를 담아 전승되는 것이 밝혀졌다.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화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전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승 유형이 확인된 것이다.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충북 곳곳에는 산성이 남아 있다. 산성을 중심으로 벌인 치열했던 역사를 지역민은 예로부터 전해오던 이야기에 담아낸다. 역사의 현장으로 구현된 이야기 세계를 전설로 전승하는 그 과정에서, 충북 사람들은 오롯하고 깊은 문화의 색깔을 잊지 않았다. 바로 전설 속 증거물인 산성이 신들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신들의 세계였던 공간에 인간이 들어가 국가 정복의 각축을 벌이면서 신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축성설화로 전설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신의 세계였음을 신화소로 전승하는 것이다. 충북지역에서 전승되는 오누힘내기설화는 역사적 유물인 동시에 신의 세계를 담아내며 오늘에 전해 왔다.

광포설화로 자리잡은 오누힘내기설화가 전설로서 유형을 정립하는 가운데, 충북지역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한다. 최래옥(1968)은 광포설화를 연구하면서 “오누힘내기설화의 기원이 충북이고, 그 중에서도 청주 지역으로 추정”한다. 오누힘내기설화가 신들의 세계를 다룬 신화소의 이야기에 뿌리를 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시대가치를 중심으로 전승해 전설화한 것과 차별적 전승의식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덕순(1982)도 충북지역 오누힘내기설화의 중요성을 밝힌다. 이야기 속 오누이가 산을 주재하는 여신이라 정의 내리며 신화소적 가치를 정립한다. 그 예로 청주 지역 <노고성(老姑城) 전설>을 할머니인 ‘노고(老姑)’ 또는 ‘마고(麻姑)’를 여신의 별칭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지역 오누힘내기설화는 모계 중심 세계의 주재자인 여성신이 인간중심으로 변모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비극을 맞는 내용으로 결말짓는다. 여성 신이 세계를 관장하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며, 모계중심 사회에서 부계 중심으로 세계가 이동하는 것은 공통적인 내용이다. 부계중심의 사회로

사회 구조가 변혁되면서 신화세계는 퇴화하며, 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결말을 맺는다. 이 과정은 단순 오누겨루기로 전개되지 않는다. 오누힘내기설화에서 어머니, 누이, 남동생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며느리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힘을 겨루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이는 신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역사화하는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로 전승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 계승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있었음을 인물과 이야기 구성을 통해 구현한다. 모계여신 사회에서 부계 농경사회로의 변화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하는 것이다.

**자연으로
영원히 남은
마고할미 이야기**
**:여신인 마고는
어떻게 살았을까?**



▲단양 석문

지역에서 특히 신화적 요소가 강하게 전승된다. 제천 지역을 예로 들면, 여신 마고가 선돌을 날려 세우거나, 돌을 들어 옮기거나, 적들과 싸우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거인형 여신인 마고가 전승 과정에서 위상이 격하되거나 부정적 인물로 변모하는 데 비해, 충북지역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여신 마고를 온전히 기억하는 단양 지역 설화를 소개한다.

도담삼봉 위에 석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옛날 마고할미가 석문 안에 살고 있었다. 마고할미는 높은 산인 이곳에 아흔아홉 마지기의 눈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논두렁을 똑바로 만들어 논이 마치 바둑판처럼 정연하였다. 그런데 봄철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물이 꺾어 못자리를 하고 모를 심을 때면 마고할미의 눈에도 물이 꺾이게 되고, 비가 억어 눈에서 물을 뺄 때면 마고할미의 눈에도 저절로 물이 빠졌다. 마고할미는 긴 담뱃대를 물고 술을 마시고 있어도 농사일은 저절로 되었다. 오랫동안 마고할미가 여기서 살다가 끝내는 바위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석문 옆에는 담뱃대를 물고 술병을 들고 있는 형상의 마고할미 바위가 있다. 또 석문 아래 흐르는 한강 물을 건너 도담리 강가까지 징검다리를 놓아 마고할미가 이곳을 건너 다녔다고 한다. <단양군지(2005), 420-421.>

단양지역 마고 설화는 여신인 마고가 자연을 주재하며 농사일을 관장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아흔아홉 마지기의 눈은 농경중심 사회의 풍요로운 모습을 구현한다. 이야기는 마고할미가 바위가 되어 여전히 도담삼봉 위 석문에서 살고 있다고 전한다. 우뚝 솟은 산 정상, 신의 세계인 석문, 영원을 상징하는 바위,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한강이 어우러져 상징적인 신화의 세계를 구현한 이야기이다.

전설의 전형처럼 전승되던 오누힘내기설화에도 신화소를 남겨 전승하던 충북민의 전승의식은 ‘옛것의 가치를 지키며 현재를 담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에도 신화소를 남겨 전승한다면, 신화도 전승되지 않을까? 오누힘내기설화에도 이름을 남겼던 마고할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모계 중심의 사회를 방증하는 인물인 마고는 여성 거인 설화의 주인공이다. 마고신화는 성이나 선돌, 석문 등의 증거를 남긴 채 전승된다. 여신 마고 이야기는 제주도, 경주 등에서 신화의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된다. 여신인 마고 이야기는 후대에 갈수록 전승자에 의해 희화되거나, 부정적 측면으로 변모된다. 세계중심이 부계로 이동하면서 여신 마고는 희화되어 몰락까지 보이는 다양한 변이 형태를 띤다.

충북지역에서도 마고설화가 전승된다. 충북에서 마고는 주로 힘이 세고 사나운 인물로 등장한다. 북부

인간과 함께하는 죽령의 다자구할머니 이야기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신은 자연으로 회귀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인간과 함께할까? 신화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공존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전하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을까? 충북지역에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원시종합예술체(ballad dance)로서 전승된다. 충북지역에서 전승되는 인간과 신이 함께하는 이야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령 산신좌정담이다.

충북 단양군 죽령에는 다자구할머니가 살고 있다. 이 다자구할머니는 원시종합예술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죽령 동제의 구술상관물로서 의의가 있다. 몇몇 지역에서 산신좌정담과 민속신앙 의례의 구술상관물로 이야기가 채록되었지만, 그 연원이 죽령의 다자구할머니임은 이견이 없다. 다자구할머니 산신내력담은 죽령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띤다. 그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설화와 의례에 비해 죽령의 다자구할머니 설화와 죽령산신제는 서사성과 제천 의식의 엄중성에서도 그 차이를 보인다. 문화의 기원을 음악, 문학, 의례를 갖춘 원시종합예술체에서 찾는 학설에 비할 때, 죽령의 다자구할머니는 서사를 갖춘 이야기, 음울에 가사를 엮은 노래가사, 동민의 축원의식을 제례화한 의례를 모두 구현한 원시종합예술체의 성격을 구현한다. 다자구할머니의 산신 좌정을 담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강면 용부원리 텃골 남쪽에 다자구할머니의 산신당이 있다. 이 산신당은 죽어서 죽령의 산신이 된 다자구할머니를 모시는 산신당이다. 옛날에 대강면에서 경상도 풍기로 넘어가는 죽령 고개는 험하기도 하였거니와 도둑떼들이 들끓어 지나가는 행인을 괴롭히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밤에만 나타나던 도둑들이 대낮에도 나타나 행패가 심해지자 관가에서는 군졸들을 풀어 도둑들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도둑들은 험한 산세(山勢)를 이용해 피하였으므로 도둑 잡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런데 도둑들에게 가산(家産)을 모두 빼앗긴 할머니 한 사람이 관가에 찾아와 도둑 잡기를 자청하였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도둑을 잡겠다고 하므로 관원은 의아해하며 “할머니가 어떻게 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자기가 도둑 떼 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 군졸들을 죽령고개 일대에 숨겨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자구야 다자구야”하고 소리를 내면 도둑들이 다 잠을 자고 있으니 급히 잡으러 오면 되는 것이고 “들자구야 들자구야” 하거든 도둑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이니 숨어 있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할머니는 곧 죽령고개를 오르락내리락 하여 목청을 돋구어 “다자구야 들자구야” 가락을 붙여 소리 높여 외치며 도둑들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속에 숨어 살던 도둑은 매일같이 노래 부르며 고개를 오르내리는 할머니를 수상히 여겨 할머니를 잡고는 그 까닭을 물었다. 할머니는 다자구와 들자구는 아들들의 이름인데, 얼마 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아직 돌아오지 않아, 호환(虎患)이 나 당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온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두 아들이 없으면 자기는 올 데 갈 데도 없다고 하였다. 도둑들은 할머니에게 자기네를 따라와서 밥 짓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좋다고 말하면서 도둑들을 따라 갔으며 함께 살며 밥 짓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관군을 불러 도둑을 잡을 좋은 기회를 엿보았으나 여간해 그런 기회가 오질 않아 밤마다 “들자구야 들자구야”를 노래처럼 부르지만 했다.

그러다 하루는 두목의 생일이 되었다. 도둑들은 대낮부터 실컷 술을 마시고 한밤이 되면서 모두 잠에 골아 떨어졌다. 할머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자구야 다자구야” 하고 노래를 외쳤다. 그때 숨어 있던 관군은 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도둑들을 모두 잡아 버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자구할머니’라 부르고 다자구할머니가 죽어서 죽령산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단양군지(2005), 426-427.>



▲죽령산신당

다자구할머니 이야기는 할머니가 지혜로 용기로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떼를 물리친 과정을 자세히 보여 준다. 마을과 나라를 평안하게 한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산신으로 좌정한 이야기로 끝맺는다. 다자구할머니가 산신으로 좌정하는 과정과 그 지혜로움을 담은 서사이다. 다자구할머니의 영험함은 서사적 구현에 그치지 않는다. 음울 속에 가사를 얹어 노래한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언제 가면 잡나이까/ 다자구야 들자구야 아직 오면 안 됩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소리칠 때 기다리소./ 다자구야 들자구야 그때 와서 잡으라소.”라는 내용의 노랫말은 다자구할머니의 지혜로 도적을 잡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 노래는 다자구할머니가 산신으로 좌정하면서 산신을 위한 신가(神歌)로 전승된다.

다자구할머니의 영험함은 서사와 음악으로 구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식으로 제례화되어 정기적으로 그 신성성을 전한다. 다자구할머니의 신성성을 기리며 인간의 복을 염원하는 죽령산신제는 조선의 국행 의례적 절차-국사제를 거쳐 오늘날까지 산신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죽령산신에 대한 영험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계 인근 지역민도 신성시하며 전승할 정도이다. 다자구할머니설화가 죽령산신제와 함께 구술상관물로서 전승되며 신과 함께하는 인간 세계의 공존을 잊지 않고 전승하는 것이다.

충북의 영화 이야기 1

윤정용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한국영화사 연구자인 정중화는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이라는 부제의 『한국영화사』(2008)에서 한국영화의 출발점을 1897년으로 잡는다. 그의 한국영화사 분류에 따르면 1897년부터 1923년까지는 ‘활동사진의 도래 그리고 한국영화의 탄생’, 1924년부터 1934년까지는 ‘무성영화의 르네상스’, 1935년부터 1945년까지는 ‘발성영화의 시대 그리고 국책영화’,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해방 그리고 6·25전쟁’, 1954년부터 1961년까지는 ‘한국영화의 성장과 중흥’,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970년대는 ‘통제와 불황의 악순환’, 1980년대는 암흑 속의 모색, 1990년대는 ‘다시 르네상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대의 한국영화’다. 그는 2000년대 한국영화에 대해서 부제를 붙이지 않았지만, 만일 필자라면 ‘한국영화, 세계와 마주치다’라는 정도의 부제를 붙이겠다. 조금 더 자신 있다면 ‘한국영화, 세계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고 붙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영화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그동안 한국영화사자들이 실증 자료 수집과 함께 연구에 천착해온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학계에서는 조선 대중에게 활동사진이 널리 공개된 최초의 시점을 1903년 6월 전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화의 대중 상영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사료인 1903년 6월 23일 『황성신문』의 광고문에 근거한다. 몇몇 영화사자들은 조선에 영화가 처음 들어온 시점을 1897년으로 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김중원을 들 수 있다. 그는 1897년 ‘본정좌’에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해 실사 몇 권을 가져다가 상영했다는 1929년 1월 1일의 「조선영화총관」의 기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가 한 공간에 모인 다중과 만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 시사가 본격화된 1903년 전후를 활동사진이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시점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고 타당해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영화가 최초로 상영된 시기는 1903년이고 상영 장소는 영미연초회사 창고다.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상영된 최초의 시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영화의 역사적 시간 확인이 아니라 한국영화의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역사상의 발전이라는 더 큰 의의가 있다. 1903년부터 시작된 영화의 상영은 흥행이라는 산업적 요소를 동반했고, 창극, 판소리, 연쇄극을 상연하던 극장들이 1910년을 전후로 점차 영화상영관으로 개축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명의를 극장 허가를 억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본인 명이나 서양인 명의를 얻어 운영되면서 각 지역으로 극장들이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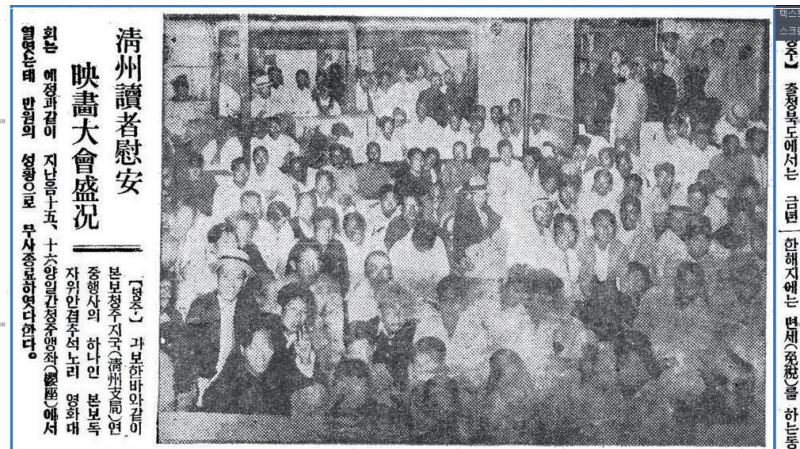
초창기 영화가 상영된 극장은 오늘날의 복합 문화 공간에 가까웠다.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판소리, 전통 연희 등도 함께 공연되었다.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상설영화관은 서울에서 1910년을 전후로 등장했다.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남촌에는 경성고등연애관, 대정관, 황금관 등이 개관했고,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북촌에는 1912년 우미관이 개관했다. 특히 우미관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상설영화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우미관은 경성고등연애관이 점차 영화상영관으로서의 세를 잃자 그 공백을 메우며 조선인 관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극장이 되었다. 이후 우미관은 단성사, 조선극장과 함께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당시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주로 ‘연쇄극’이었다. 키노드라마라고 불렀던 연쇄극은 연극무대에서 표현 불가능한 야외장면을 필름으로 미리 촬영하여 무대 위의 스크린에서 연극 공연과 연결하여 상영했다. 신파극의 인기 하락으로 불황을 겪고 있던 신파극계는 연쇄극의 흥행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참고로 신파극은 메이지 중기 일본 연극계에서 가부키나 노와 같은 전통극에 대해 등장한

현대극으로 소시나 서생을 주로 다루어 초기에는 '장사극'으로도 불렸다. 신파극은 계몽극, 정치 선전극 등 사회적 주제를 다룬 신연극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대중적 통속극으로 의미가 변했다. 즉 신파극의 레퍼토리는 처음에는 일제의 정책적 의도나 근대적 가치를 권선징악 구도에 담은 목적이 많았으나, 이후 단순한 즐거리와 과장된 감정 연기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가정비극이나 비련의 로맨스로 옮겨 갔다.

1923년 극영화의 형식을 갖춘 <월하의 맹서>가 서울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영화는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저축 계몽을 목적으로 제작한 관제 영화이지만 무성영화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쇄극과 달리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온전히 필름으로 소화한 극영화라는 점, 그리고 각본, 감독, 출연이 모두 조선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영화사적 의의로 기록된다. <월하의 맹서>보다 앞서 계몽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월하의 맹서>가 최초의 극영화이지만 새로운 연구를 통해 최초의 극영화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1923년이라는 연도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처럼 '활동사진의 도래 그리고 한국영화의 탄생'은 1897년부터 1923년까지의 시기를 아우른다.

우리나라 초창기 지역 영화의 역사는 곧 극장의 역사다. 충북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충북 극장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충북영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충북 최초의 극장은 '덕영좌'로 알려졌다. 덕영좌는 일본인 도쿠가나 소베에가 지역 친일 재력가 방인혁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따서 1914년에 4월 청주에 설립한 극장이다. 덕영좌는 낮에는 주로 신파극을 공연했고 밤에는 환등기를 이용해 외국의 자투리 영화들을 상영했다. 덕영좌는 지방 최초의 극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구의 '조선관'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다. 덕영좌는 당시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지방의 대중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덕영좌는 완전한 극장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1923년 발간된 『청주연혁지』에는 덕영좌의 시설이 형편이 없어 청주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았다고 적혀 있다.



▲〈청주 독자위안 영화대회 성료〉 기사(『동아일보』 1935. 9. 17.)

완전한 형태를 갖춘 극장은 1916년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에 완공된 '앵좌극장'이다. 앵좌극장도 덕영좌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친일 재력가들의 도움으로 설립되었고 주로 신파극과 연쇄극을 공연하였다. 앵좌극장의 관리는 청주소방서에서 하다가 해방 후 민간인에게 양도되었다. 앵좌극장의 입장객은 비교적 많았으나 시설은 그리 양호하지 않았다. 청주의 일본인들은 1923년 앵좌극장의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부터 대대적인 개축에 들어갔다. 『청주연혁지』에 따르면, "1923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7월에 접어들어 낙성을 알리게 되어 내면과 외관의 면목을 일신하여 시민들에게 만족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청주연혁지』는 일본인이 쓴 책으로 다분히 일제의 시각을 반영하여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다. ‘도시 발전’, ‘시민들에게 만족’ 등의 표현이 이를 증거한다. 하지만 당시 『동아일보』에 연중행사로 열리는 ‘영화대회’에 시민들이 액좌극장을 가득 메웠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또 액좌극장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음악 공연 등이 다양하게 열렸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청주 제1호인 액좌극장이 충북영화와 대중문화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제 강점기 충북 지역 극장의 상황은 열악했다. 192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영화검열 관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0개 상설관 중 충북에는 단 한 곳만 있었고 연간 관객 입장 숫자는 7,205명에 불과했다. 충북 지역 극장 상황이나 관객 입장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충북 지역의 극장 형성 시기는 타지역과 비슷하거나 조금 빨랐지만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수난기를 보냈다. ‘청주극장’, ‘현대극장’, ‘시공간’, ‘공보관’, ‘시민회관’ 등의 극장이 생겨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북의 극장들은 본격적으로 모양을 갖추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특히 1980년대에는 지역 상권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장들이 대거 등장한다. 한때 청주에만 22개의 소극장이 있을 정도로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극장은 포화상태를 이룬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소극장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극장의 노후화도 인한 낙후된 시설과 불충분한 부대시설 등이었다. 즉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소극장 수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복합상영관이 등장하면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

요컨대 충북은 덕영좌와 액좌 극장을 통해 일찍부터 영화 문화를 수용했지만 지역적인 정책 부재와 극장 대표들의 소외와 등한시로 지역 영화 문화 저급화 현상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영화 문화 의식의 주체성을 상실했다. 극장은 관객이 영화를 직접 접하는 물리적 장소이자 영화문화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다. 하지만 충북의 극장 대부분은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한 소극장이었다. 영세한데다가 운영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다. 결국 충북의 극장은 영화문화의식의 형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990년대 후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숙영은 「충북 영화문화 현황 연구: 지역 영화문화의식 중심으로」(1999)라는 논문에서 충북영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발표된 지 이십 년도 훨씬 지났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영화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문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영화문화의식’이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 필자에 따르면, 충북 영화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관객들이 영화문화의식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로 충북에는 충북의 영화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 영화 문화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했고, 영화문화의식의 주체성이 상실되었다. 상실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영화문화 유입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영화문화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수용자로서의 인식과 의식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논문 필자의 제언은 여전히 유효하고 충분히 곱씹을 만하다.

주지하듯 영화는 시각적 텍스트로 읽히는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상품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영화제는 예술과 산업으로서의 속성을 지닌 영화를 하나의 공동된 지역, 주제, 소재를 통해 축제 형식으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상품이다. 21세기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 콘텐츠는 거대한 산업으로 부상하였고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충북영화는 크게 '제도권 영화교육'과 '영상문화운동'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성장한다. 제도권 영화교육은 대체로 대학 내 연극영화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영상문화운동은 대학 내 영화동아리와 예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제도권 영화교육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에서 제도권 영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3년 서라벌예술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이후 동국대, 서울예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 연극학과, 영화학과 또는 연극영화학과가 개설되었다. 현재는 수십 개의 대학에서 영화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아람찬은 『영화교육과 영화 리터러시』(2021)에서 한국 영화교육의 궤적을 1953년의 서라벌예대 설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태동기, 도약기, 성장기, 발전기 등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태동기는 조선배우학교를 기준으로 1924년부터 1952년까지로 서라벌예대 설립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도약기는 1953년부터 1980년 청주대의 영화과 설립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성장기는 1981년부터 1988년 단국대의 영화과 설립까지의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영화교육의 확대 시기다.

다시 말하지만 1980년대는 한국 영화교육의 성장기로 그 출발점은 1981년 청주대학교의 연극영화학과 설립이다. 1983년에는 부산의 경성대에 연극영화과가 설치되었다. 그 이듬해인 1984년에는 1년 과정의 한국영화아카데미를 개교한다.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설립은 예술대학 내에 연극영화학과를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서울에서만 영화교육을 받을 수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청주대의 연극영화과 설립은 경성대의 연극영화과 설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 이유는 영화 도시라는 부산의 도시 위상과 관련이 더 크다. 부산은 일본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예전부터 영화 도시라는 명성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부산에 1924년에 국내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96년부터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하지만 경성대의 연극영화과 설립 또한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

현재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현재 연극영화학부)는 1981년 개설되어, 40여 년의 전통과 국제화의 위업을 바탕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 영화 영상예술인 육성을 위해 최상의 교육을 구현하고 있으며, 보다 세계적인 영화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 충북에는 두 개의 대학에 영화 관련 학과가 있어 충북 영화의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다. 세명대학교 공연영상학과는 2005년 방송연예학과로 개설되어 2014년 공영영상학과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학과에서는 현장 중심 실무형 맞춤형 교육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및 방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2012년 개설되어 연기, 연출, 기술(스텝) 전공 분야가 있으며, 영화와 방송 등의 영상예술과, 연극 및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히 교내에 골프, 수영, 승마 등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신체훈련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세 대학 학생들은 전문 교육을 받아 미래 충북 영화를 이어갈 인재들이지만, 충북의 영화산업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여 졸업 후 타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충북지역의 영상문화운동은 1980년대 충북대학교의 '아리랑' 등과 같은 대학 내 영화동아리, <파업전야>의 공개 상영을 이끈 학생운동 진영, 문화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대학 내 영화동아리는 동호인 성격이 강하고, 학생운동 진영은 거의 와해되었고, 문화운동연합은 구성원이 계속 바뀌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문화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활동 내용이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영상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청주시네마테크 '씨네오딧세이'가 거의 유일하다.

씨네오딧세이의 태동은 1994년 충북민예총이 주최한 가을 문예아카데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처음으로 문예아카데미에 영화강좌가 개설되었고, 커리큘럼은 세계영화사와 영화학개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영화강좌 수강생은 10명 남짓 정도 되었고 반응이 크지 않아 일회성 강좌로 끝났다. 하지만 당시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1년 뒤 씨네오딧세이를 창립했다. 창립 직후부터 씨네오딧세이 회원들은 수 개월 동안 동양일보 사옥 지하 강당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영화로 보고 영화에 관해 토론을 했다. 당시 씨네오딧세이가 본격적인 영화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씨네오딧세이의 활동이 충북 지역에서 영화연구와 관객운동에 지향을 둔 최초의 영상문화운동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씨네오딧세이는 1996년부터 야외영화제를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시네마테크 전국 조직인 '한국시네마테크연합'에 가입함으로써 당시 수입되지 않은 예술영화와 희귀한 작품과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다른 지역의 시네마테크와 연대하고 소장 자료를 공유하면서 순회영화제도 개최했다. 토요일 정기상영회와 자체적으로 기획한 영화제를 통해 지역 관객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영상문화운동을 전개해나갔다. 특히 영화 보기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토요일 정기상영회는 단체를 홍보하고 신입 회원을 확보하는 주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전, 기획전, 장르전의 기획의 발판이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씨네오딧세이의 활동이 충북 지역 영상문화운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영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씨네오딧세이 관계자의 말처럼 "최소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씨네오딧세이가 충북영화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도 바뀌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네마테크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이야기한다' 혹은 '영화를 읽는다'라는 본령만큼은 유지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씨네오딧세이에게는 앞으로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영화에 관심이 많은 개인을 이끌어 충북 지역의 영상문화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단단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고민과 숙제가 함께 놓여 있다. 어쩌면 이는 충북영화의 고민과 숙제이기도 하다.

충북민예총의 영화 분과를 대표하는 씨네오딧세이가 충북 지역 영상문화운동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충북예총의 영화 분과다. 충북예총의 영화 분과는 씨네오딧세이처럼 별도의 단체명이 있지 않고 '한국영화인협회 충북지회' 혹은 '충북영화인협회'다. 충북영화인협회는 충북지역문화예술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건전한 한국영화의 문화 정립을 위한 영화문화 저변 확대 및 충북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지역 영화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충북 지역 출신 영화인들의 우수 작품들을 '청풍명월 영상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초청 상영함으로써 지역 영상문화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활동을 했다.

충북영화인협회에서는 영상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권익 옹호 사업, 국내외 영상 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각종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업, 지역영화문화 관련 여론 조사 및 정리, 영화문화 세미나 개최, 충북출신 영화인 작품 초대전 및 충북영화문화상 시상, 가입단체 및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 청소년 영상제, 청풍명월 영상제, 청풍명월 거리축제, 청주 디지털 영화제, 각종 영화제작 등 지역의 수많은 영화제와 영상제를 기획 관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전까지는 충북영화는 극장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 충북영화는 크게 '제도권 영화교육'과 '영상문화운동'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 성장해왔다. 1990년대 이후로 한정해서 말하면 영화라는 같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즐기면서도 제도권 영화교육과 영상문화운동은 별도로 전개되었다. 즉 제도권 영화교육은 청주대 연극영화과, 특히 영화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영

상문화운동은 '아리랑'과 같은 대학 내 영화동아리, 씨네오딧세이와 충북영화인협회 등의 예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씨네오딧세이와 충북영화인협회는 독자적으로 영상문화운동을 전개해왔다. 지금까지 제도권 영화교육 기관이나 영상문화운동 단체는 독자적으로 충북영화를 써왔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매우 훌륭하고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함께 충북영화를 함께 써야 할 때다. 물론 이는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충북영화사라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안미옥 시인이 「사운드 북」이라는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해는 젖은 신발을 신고 / 신발이 다시 마를 때까지 달리는 것이"다. 즉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충북영화를 쓸 시간은 충분하므로 서로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도 괜찮다.

06 충북학 연구소 소식

2021년 충북학연구소 발간물

『충북학』 제23집

『충북학』은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 연구지로 순수학술지 겸 저널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게재 내용은 '충북' 관련 역사문화를 포함한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이슈를 포함한다. 충북학연구 성과의 정리와 확산,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 제23호가 발간되었다. 특집, 연구논문, 문화초점, 인물탐구, 충북의 재발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0년 청주군세요람』

90여 년 전 청주지역의 각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북지역 향토사로 국역화 사업'의 일환을 발간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경영자로서 일제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로 환산된 당시 청주군의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 상황, 조선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과 그 시행 성과는 일제가 당시 우리의 자원을 얼마나 치밀하고 지독하게 수탈해 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1915년 충주』

『1915년 충주』는 1915년 충주에 거주하던 촌상우차랑(村上友次郎)이라는 일본인이 발간한 『최근 지충주(最近之忠州)』를 편역한 자료이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 충주에 정착했던 일본인의 시선으로 서술된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충주의 식민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해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일제가 당시 우리 민족을 저지분하고 게으른 미개인으로 낙인찍고,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족의 삶과 터전과 문화를 파괴하는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충북학, 충주학을 연구하고 근대 향토사를 엮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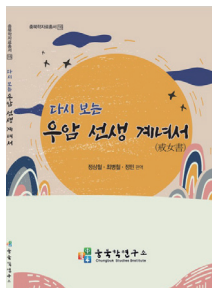
『다시 보는 우암 선생 계녀서』

이 책은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시집가는 딸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순한글로 지어 써 준 『계녀서(戒女書)』를 현대어로 풀어 쓴 것이다.

『전환기, 충북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모색』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전환기에 직면한 충북 문화예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삼아 충북 지역 문화예술의 현장 현황을 살피는 한편, 세계적 흐름과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 향후 충북 문화예술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021년 충북학연구소 발간물은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http://csi.c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6시까지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원회는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과 9명의 자문위원-강태재(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길경택(충북향토사연구회장), 김승환(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일(청주대학교 교수), 박연호(충북대학교 교수), 유영선(동양일보 이사), 이동원(충북민예총 이사장), 임승빈(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화(열린기획 대표)-으로 구성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충북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방향, 위상과 역할,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하였다.



▲ 2022년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 회의

2022년 『충북학』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충북학연구소의 정기간행물인 『충북학』의 편집위원회 회의가 2022년 3월 30일 오후 2시~6시까지 충북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존 편집위원들의 임기가 2021년으로 끝나 이번에 새로운 편집위원들을 위촉하였다. 김정애(충청매일 편집부국장), 김희찬(충북향토사연구회 사무국장), 박현수(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기획국장), 이상희(충북대 교양교육본부 초빙교수), 정지현(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조혁연(충북대 사학과 초빙교수)가 새로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회의에는 정초시 충북연구원장과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과 연구원, 편집위원이 참석하여 올해 발간할 『충북학』 제24집 편집 방향과 내용뿐만 아니라 웹진 『충북학누리』와 기타 충북학연구소 사업을 논의하였다.



▲ 2022년 『충북학』 편집위원회 회의

2022년

“충북학 제24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발간 『충북학』 제24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편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2022년 10월 30일
게재심사: 2022년 11월 15일
결과통보: 2022년 11월 16일
발간시기: 2022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2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